

고흥군, 전국 최초 '2030 공공시설 탄소중립' 선언

고흥군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힌 녹색에너지로의 대전환 추세에 따라 전국 최초로 2030 공공시설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1일 고흥군에 따르면 전국 최초 공공 분야 탄소중립 100% 달성을 위해 공공 시설 전력을 그린에너지로 전환하는 '공공시설 그린에너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군유지 및 공유수면에 설치한 태양광 입지 사용료와 태양광 발전 수익 등 신

재생에너지원 관련 수입금은 공공시설 전기요금 55억원의 38% 수준인 21억원

을 특별회계로 관리해 2030년에 100%가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군은 앞으로 신축할 공공 건축물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 설치해 공공 전

력의 녹색에너지원화 100% 달성 시기를 앞당겨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주민 공

공공시설 그린에너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입법 예고 군 주도형 발전사업 추진 등 주민 수용성 여건 진단

은 500MW로서 전국에서는 5번째로 많은 양이다. 현재 민간 주도로 추진 중

있는 10MW급 이상 발전소는 해상풍력 16개소 4천800MW와 육상풍력 3개소 13

시군이 이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고흥지역에서는 민간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주민들의 피해와 갈등을 예방

하고 주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군 주도 발전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의견을 확

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용역을 진행 하면서 건설한 사업자와 함께 군 주도

형 발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주민 수용성 극복 여건을 진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군 관계자는 "오는 17일까지 입



여수·순천·광양행정협의회가 최근 광양시청 대회의실에서 3개 지역의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광양시 제공>

여수·순천·광양행정협,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건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률 공동 대응 등 상생협력 현안 논의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가 제7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3개 시의 상생

협력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1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광양시청 대회의실에서 3개 시의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이 공동으로 협력해 온 연계사업 10건과 공동협력사업 7건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공동협력사업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신규 연계협력 사업은 ▲'전남

정정 수소발전 국제포럼' 사업비 증액 ▲'시내버스 요금 인상시기와 인상률 등 공동

대응 ▲여수·순천 간 시내버스 구간 요금제 조정 건의 ▲이순신대교 국도 승

격(제) 건의 ▲'국보 광양 흥흥산성

쌍사자 석등 제자리 찾기' 서명운동 등 참 협동 등 5건이다. 정기

회에서는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시민들이 생활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출퇴근, 학생들의 등하교를

담양군 물순환사업소-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 상호 기부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정착·협력 강화

담양군 물순환사업소와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최근 담양군 물순환사업소

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상호



김용희 물순환사업소장은 "담양군과 영광군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라는

당면 과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상호 기부를 시작

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광양시 '달리는 공기청정기' 수소버스 운행

관광 버스 8대 추가 보급·시내버스 2대 도입 예정

광양시가 관내 최초 수소버스(사진) 운행을 시작했다.

1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수소버스는 관광버스 형태로

그동안 수소 승용차에 집중했던 광양시 수소차 보급 사업이 올해를 기점으로

수소버스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시는 올해 안에 관광버스 8대를 추가

보급하고 오는 8월부터는 수소 시내버스 2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구입 보조금을 감안하면 민간이 부담하게 될 비용은 수소 고상버스 2억

원, 수소 저상버스 1억3천만원으로 일

반 버스 구입 비용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소버스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사용

하는 버스에 비해 차량 진동과 소음이 거의 없으며, 배기가스나 탄소배출이 없

어다. <광양=양홍철 기자



모했다. <광양=양홍철 기자

장성 평림댐 '기후변화 도시숲' 조성

1ha 유휴지에 나무 430여그루·관목 식재

장성군은 1일 "평림댐에 '기후변화 도시숲'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사진>

기후변화 도시숲 조성은 기후변화로 도시 중심부 기온이 높아지는 '열섬현상'

완화와 탄소 흡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규모 숲을 만드는 사업이다.

군은 산림청 지원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평림댐 유휴지 1ha 면적에 소나무, 철쭉, 애기똥방, 주목, 계수나무

등 430여그루의 나무를 식재했다. 남천, 영산홍, 꽃망초 등 관목 2만8천여

그루를 복층 구조로 심어 불거리를 갖

게 조성했다. <장성=김태기 기자

다. <장성=김태기 기자

사업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포도로 경영체 등록

을 완료한 필지를 경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당도 증가제, 토양개량, 다. <화순=이병철 기자

작물 생육용 유기농업자재 구매비로

㎡당 1천500원을 사업비의 50%로 보조 지원한다.

"밤에 빛나는 순천만국가정원" 야간 개장

매일 오후 9시까지 운영...야간 입장 50%할인

순천시는 1일 "순천만국가정원 개막과 함께 매일 오후 9시까지 야간개장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순천만국가정원의 야간로그적 요소

는 완성도를 더 높이고 AI와 문화콘텐츠를 더해 밤에 더 빛나고 아름다운 정

원으로 재탄생시켰다. 주요 콘텐츠로 국가정원의 아름다

움에 반해 놀러 온 우주인이 착륙한 다리, '스페이스 브릿지'는 환상적인

야간경관과 우주에너지와 순천만습지의 생명에너지를 미디어로 담았

다. <순천=정기 기자

노를 정원에 두다다쿵 '두다하우스'는 자연주의 예술가 박봉기 작가의

작품으로 생명의 시원이 되는 자연의 모습을 환한 빛과 조형물로 연출해 신비

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AI가 만든 디지털미디어와 4D콘텐츠

체험관을 즐길 수 있는 '시크릿 어드벤처'에는 생명력을 잃어가는 '마더트

리'를 구하기 위해 떠나는 우주여행이 관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동천 일원에서 펼쳐지는 국내 최초 수상 페스티벌 역시 순천의 밤을 화려

하게 수놓으며 타는 재미, 보는 재미를 <순천=정기 기자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순천=정기 기자

이 밖에 개울길 정원 인근 화려한 꽃들이 반짝이던 구원된 '반지정원'과

일과 휴식, 관광이 한데 어우러진 '정원 위키이션'까지 다채로운 콘텐츠가

준비돼 있다. 노관규 시장은 "이번 야간개장을 위해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이

결합된 환상적인 야간 콘텐츠를 야심차게 준비했다"며 "밤에만 볼 수 있는

정원의 새로운 매력으로 관람객을 매료시키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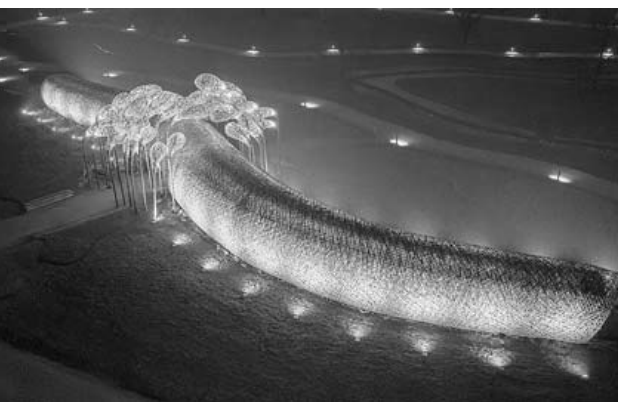
순천만국가정원은 매일 마지막 주일요일 휴장이며 야간개장은 오후 5시

부터 7시까지 가능하다. 야간권은 성인 기준 보통권 1만원에서 50% 할인된

5천 원이며, 순천 시민은 야간도 주간과 동일하게 2천 원이다. <순천=정기



스페이스 브릿지 조감도(야간) <순천시 제공>



두다하우스 야경 <순천시 제공>